

#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 시동

### 충남, 청년문화발굴회에 참여할 10명 모집 문화공간 확충·환경개선 마련... 내년 시행

민선 8기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대학로 조성 사업이 첫 시동을 건다.

도는 천안 안서동 대학가 및 천호지 주변을 청년문화의 중심인 대학로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일까지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安Young해)' 참여 청년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부터 도, 천안시,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청년활동공간 의견

제시 등에 나선다.

참여 자격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에 관심 있는 19~39세 청년으로 웹자보 정보부니(QR코드) 및 네이버 설문조사 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안 안서동은 5개 대학 4만 8000여 명의 대학생이 상주하고 있으나 청년 활동공간 등이 부족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청년들은 그동안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마련과 환경개선 필요성

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는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윤동현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청년이 직접 발굴하는 청년 문화 활동은 지역과 청년, 대학의 상생과 지역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청년 참여를 보장할 방침으로 청년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kjang@skyedaily.com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청년모집 포스터.

충청남도



2022. 제7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 포스터.

### 보성,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

전라남도 보성군은 27일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서 '2022. 제7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갯벌어업을 활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벌교 천상갯벌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성 갯벌을 활용한 이번 대회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양레저 스포츠"라면서 "올 여름 보성을 방문한 모든 분의 기억에 오래 남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하는 축제인 만큼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메인 행사인 레저벨배대회 이외에도 갯벌 풋살대회, 갯벌 씨름대회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썰매, 칠게 등 갯벌 생물 잡기, 갯벌 보물찾기 등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편, 갯벌에서 꼬막 등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던 벨배는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등록되었고 레포츠 장비로 개발되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호응이 높은 체험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성환 기자msh@skyedaily.com

## 당진시, '을지연습 대비 공무원교육' 실시

### 국가비상 대비태세 대응 평화통일 안보교육 병행

충청남도 당진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 을지연습'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 당진홀에서 4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을지연습은 다양한 안보위협 및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법정부적 훈련이다.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주요 민간업체들이 을지연습에 참여한다.

이날 교육은 2017년 이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축소됐



당진시가 '2022년 을지연습'과 관련해 4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을지연습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2022년 을지연습 홍보영상'을 시청을 시작으로 국가관리위기체계 및 연습 일정 등에 따른 주요훈련 일정 및 내용 숙지와 함께 정상통 당진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평화통일 안보 교육도 병행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평화는 투철한 안보 의식과 철저한 비상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을지연습에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4일 대면교육 2회와 5일 비대면교육 1회로 총 3회 이뤄지며 중무계획 단계별 추진사항과 보안교육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박현선 기자hspark@skyedaily.com

## 보성군도 자체 교육

전라남도 보성군은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 을지연습을 대비하여 지난 1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을지연습 사전교육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 중심을 실시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을지연습의 개요, 전쟁에 대비한 도상연습, 총무계획 기본 골자 등 을지연습 기간 중 대응해야 하는 주요 계획과 실무를 숙지했다.

또한, 출장 및 휴가로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을지연습 관련 교육 자료를 보냈으며 부서 협조 회의를 통해 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을지연습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성군은 2022년 을지연습을 대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열었다.

군 관계자는 "근래 여러 여건상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 시행했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을지연습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시 및 비상사태에

서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적 위기관리와 전쟁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훈련이다.

문성환 기자msh@skyedaily.com

##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두 배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 파크골프 연습장은 가족 명랑골프 체험 별난 전망대에서 나만의 인생샷 '찰칵'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아이' 인근에 파크골프 연습장과 구수한 일원에 명상 숲길과 이색 전망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아이'는 2018년 4월 조성된 후 현재는 위탁운영 중이다. 총 면적 19,178㎡에 캐러밴 사이트 26면, 텐트 사이트 20면, 매점, 화장실,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영광군을 대표하

는 캠핑장이다.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캠핑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시설 2곳을 조성했다.

'캠핑아이'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에 있는 '마촌 파크골프연습장'이다. 영광군은

5월 방치된 인근 소공원에 6홀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했다. 캠핑의 막간을 이용한 가족이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다.

또 캠핑장과 연결한 산책로 꾸민 '별난 명상숲길'과 '별난 전망대'다. 영광군은 국제마을음향원 일원에 명상숲길 1km를 조성하고 또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명상 전망대와 별 모양 조형물과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나만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별난 전망대를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캠핑의 개념에서



영광군 마촌파크골프연습장.

별난 전망대.

영광군청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영광군을 찾

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건후 기자ghlee@skyedaily.com

### 나주시,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1만8400여개 지원



나주시 보건소는 임신부를 포함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임신부를 포함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1만8400여개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서현승 나주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 집단시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방역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임신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다문화가족, 위탁아동, 아동생활시설 등 3746명으로 수급 시설기관을 통해 전달하고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번 자가진단키트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와 태아,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생활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여간상 병의원 방문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이 자가진단을 통해 감염 유무를 확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민 기자bj2@skyedaily.com